

#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적자 부담 커진다

### 국제 유가 지난 12월 이후 3개월 만에 15% 이상 상승해 지출 비용 증가 적자 전환에도 이자만 4.4조...재무위기 해소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수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된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잇따른 고물가, 경기침체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으로, 한전의 재무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지는데, 연료비조정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원 자체 및 연료비 상황에 따라 매 분기마다 kWh 당

±5원까지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한전이 43조원을 웃도는 누적적자와 2023년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은 고물가 상황에 지친 민심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4조569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러-우 전쟁 발발로 인해 국제 유가 및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2022년과 견줘 약 86%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한전이 전쟁 발발 이후 점차 하락 안정세에 접어든 국제 유가 및 지난해 상반기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연속 영업실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적자폭이 대폭 감소한 것으

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전의 막대한 적자 및 부채 규모에 따른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4517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더 신속한 적자 해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전은 오는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적자폭 감소 및 적자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제 유가가 지난 12월 이후 불과 3개월만에 15% 이상 뛰었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지출 비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평균 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6.75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85.5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1.95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기 직전인 지난 12월 2주차 브렌트유(75.34달러), 두바이유(75.01달러), WTI(70.48달러) 대비 유종 별로 배럴당 약 10달러(평균 15.13%) 이상 치솟았다. 최근 경제계가 예측하고 있는 미국의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상은 희망적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명확한 데다 국제 금리 변동으로 인한 환율 상승 요인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만큼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지난해 하반기 적자전환 및 적자폭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오는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PS, 감사자문의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 자체감사활동 현황 등 공유

한전KPS는 지난 25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비전홀에서 '제 3기 감사자문의원 위촉식 및 감사자문의원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제 3기 한전KPS 감사자문의원은 자체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집단 자문기구로, 감사·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한전KPS는 신입 자문위원들의 자문 및 의견을 감사 현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감사자문의원은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24-01차 정례회의'에서 자체감사활동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2024년 연간감사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전KPS는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들의 기관업



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인제 개발원을 비롯한 전국 사업소 발전설비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의원이 자체감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전KPS는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의견을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 IT기법 기반 감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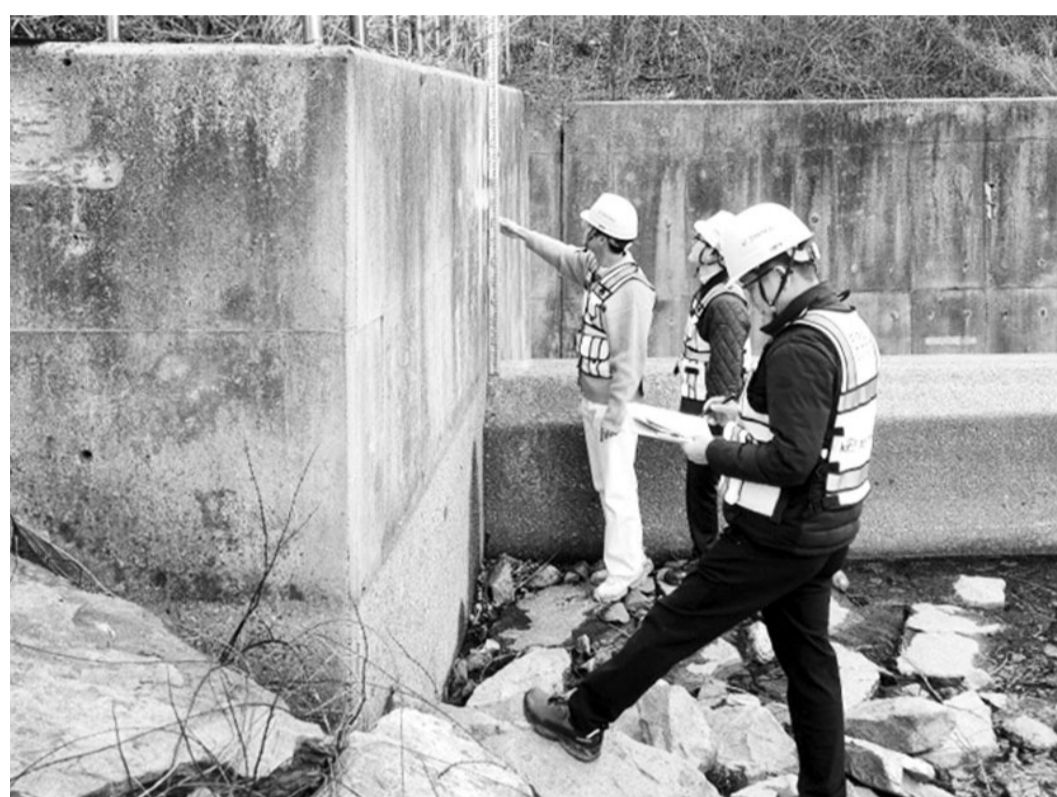
### 부패방지통합 모니터링 등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시범운영을 끝낸 IT 기반의 감사시스템을 업무에 본격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IT기법 감사시스템은 머신러닝 텍스트마이닝 등 최신 AI기법을 적용해 업무자료 자동분석으로 이상징후를 조기에 확인 가능하다. 사전 설정된 시나리오를 통해 부패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부패방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일상감사 누락 여부의 자동 점검이 가능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등 총 8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시스템 구축은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주도했다. 전 상임감사는 취임 당시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적절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첨단 ICT 감사기법 도입을 언급한 데

이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 위원은 최근 한전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만큼, 배정된 비서인원을 모두 IT전공자로 대체해 실무부서에 배치하는 등 IT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한전 감사실은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IT감사인력을 감사실 현재 인원의 10% 수준인 7명까지 확충했다. 현재도 AI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자체 IT역량을 확보 등을 통해 과학적인 사전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공공분야 감사 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IT감사시스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세네갈과 업무협약 주파수조정용 ESS 시스템 구축

한전KDN은 최근 '세네갈 주파수 조정용 ESS 통합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전KDN은 세네갈에 전력계통 주파수조정용 ESS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주파수 및 전압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전KDN은 올해 12월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한 ECS 구축, 기자재 공급, 기술 자문 및 교육지원 등을 포함하는 5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KDN은 현재 세네갈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대용량 ESS(10MWh급)를 설치하고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세네갈의 전력 수급 불균형 및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직원들이 물넘이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 농어촌공사,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점검

### 안전펜스 설치 등 23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을 점검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본부가 관리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총 저수용량 100만 t 이상 저수지 107곳, 최고 만조시 간척지에 유입되는 조수량인 포용 조수량이 1000만 t 이상인 방조제 15곳 등 총 122곳이다. 앞서 전남본부는 지난 2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기계 및 전기적 요인,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작업특성 및 작업환경 요인 등 위험 요인별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본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크고 작은 모든 위

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표지판 부착,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가드레일, 점검용 사다리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소 시설물 점검 조작 시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조영호 전남본부 부부장은 “점검 상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에 따라 상반기 내에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전남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